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강소전*

<차례>

1. 심방 연구의 필요성
2. 조상신본풀이 자료검토
3. 조상신본풀이에 나타난 심방에 대한 인식
4. 조상신으로서 좌정 양상과 무업의 전승
5. 조상신본풀이 형성과 전승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상신본풀이에 나타난 심방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심방이 조상신으로서 좌정하는 양상과 무업의 전승이다. 셋째,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이다.

이를 위해 심방의 특성과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이라는 기준을 세워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를 가려내었다. 심방의 특성은 심방이 되는 계기, 심방으로서 정체성, 심방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 3가지 측면이다.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으로 삼은 것은 신앙대상인 조상신, 신앙주체인 단골, 신앙과정과 전승의 측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6편의 조상신본풀이를 선정하였다. 고대장본풀이,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원당할망본풀이,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다. 이렇게 선별된 본풀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살펴 각각의 본풀이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상신본풀이를 주로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해서 다루었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남성형과 여성형은 심방의 특성과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을 드러냈다. 남성형에서는 심방의 특성을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해당 조상의 생업이 심방이었을 뿐 심방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걸출한 조상의 능력을 조상신본풀이를 통하여 대대로 기억하고 전승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조상으로 인하여 집안에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결핍이 없는 완벽한 조상은 후손에게 현시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에서 거의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조상신 신앙의 범위도 확대되지 않았다. 남성형은 조상신으로 모시는 해당 집안에서 ‘현재를 유지하려는 인식’의 결과였다.

반면에 여성형에서는 심방의 특성을 ‘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해당 조상의 생업이 심방이거나 또는 심방이 될 자질을 보였던 것이 집안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심방 자질은 능력으로 상승되기도 전에 끝내 이루지 못하거나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해당 조상의 능력보다는 그의 심방 팔자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니 문제의 당사자는 원혼이 되었고, 자신을 기억하고 받드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현실의 세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핍이 있는 조상은 후손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하여 정상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에서 관련 내용을 남겨 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조상의 요구에 후손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 조상이 큰 복을 내리는 것으로 여겨지자 후손들은 이것이 현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받아들였다. 이런 점은 조상신 신앙이 널리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형은 조상신으로 모시는 해당 집안과 단골에서 ‘현재를 전환하려는 인식’의 결과였다.

주제어 : 심방, 조상신본풀이, 고대장본풀이,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원당할망본풀이,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현재를 유지하려는 인식, 현재를 전환하려는 인식

1. 심방 연구의 필요성

무속신앙은 신(神), 무당, 신앙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속신앙이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현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 존재는 사실 무당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무당은 이른바 ‘심방’이라고 하는 이들을 말한다. 심방은 신앙민인 ‘단골’의 의뢰로 신과 교통하고자 하는 여러 종류의 의례를 행한다. 심방이 하는 의례의 중심은 ‘굿’과 ‘비념’이다.

심방은 어떤 존재인가. 심방은 어떤 특별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고, 입무(入巫) 뒤에 수련을 거쳐 평생 무업에 종사하는 이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선택된 존재들이다. 심방은 신과의 사이에서 영적 존재라는 의미 외에도, 단골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는 사회적 의미도 드러낸다. 심방이 무속신앙의 핵심적 존재인 까닭은 단골과 신의 사이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주 무속신앙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방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심방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는 것이 제주 무속신앙 연구의 토대가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심방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용준 교수가 토대를 놓았다. 심방의 명칭과 종류, 직능, 입무와 성무과정, 관련 의례와 본풀이 등 다방면에 걸쳐 귀중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기반을 만들었다.¹⁾ 그런데 현용준의 연구 이후에 그 진행이 생각 외로 더딘 상황이다. 심방에 대한 종합

1) 현용준은 『제주도 무속연구』(집문당, 1986)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등의 저작을 통해 제주 무속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심방에 대해 주로 다룬 것은 『제주도 무속연구』의 제1장(심방의 직능)과 제2장(성무과정)이다.

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현용준 이후에는 ‘초공본풀이’에 대한 구비문학적 연구를 제외한다면, 심방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해서는 간간이 나온 몇 편의 연구논문과 보고서가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다.²⁾

제주도 무속신앙의 핵심적 존재인 심방에 대해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방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며 촘촘히 연구설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각각의 관련 주제들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를 그려낼 수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완성된 전체의 그림으로 다시 관련 주제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심방에 대한 종합적 연구분야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글의 목적은 조상신본풀이와 심방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조상신본풀이 연구 자체도 전체적으로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심방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니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조상신본풀이의 조사와 채록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정한 집안에서 곳을 할 때에 부르기에 외부인이 곳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학들이 고투를 하며 채록한 자료가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³⁾ 실제 의례에서 채록

2)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굿』(『비교문화연구』 5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김현선, 『제주도 巫具 ‘삼맹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생활문화연구』 6집, 국립민속박물관, 2002) ; 김현선, 『무속과 정치 : 쇄결립, 쇄내림, 사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비교민속학』 26집, 비교민속학회, 2004) ; 문봉순, 『심방의 입무의례 연구 : <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강소진,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김현선, 『제주도와 충승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연구』(『비교민속학』 35집,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민속원, 2008) 등이 있다.

된 자료는 별로 없지만, 재연을 통해서라도 조상신본풀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소중하다.

이렇게 조상신본풀이를 채록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니,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빈약한 연구성과에 한몫을 하였다. 하지만 조상신본풀이에서 제주 심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다. 심방이 조상신이 되어 일정한 제향(祭享)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특정 심방의 내력을 본풀이로 전승한다는 것의 함의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상신본풀이와 심방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본풀이 뿐만 아니라 해당 의례까지 함께 살펴야 더욱 진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조상신본풀이와 심방의 관련성’이라는 주제의 여러 측면 가운데,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일정한 기준을 세워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심방과 관련한 본풀이를 추려내고, 선별된 본풀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살펴 각각의 본풀이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한다. 이어 본풀이에 드러난 심방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심방이 조상신으로서 좌정하는 양상과 무업의 전승에 대해 생각해 볼 계획이다. 그 결과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의 대략적인 면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이런 사정 속에서도 김현선·현용준·강정식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가 있어 다행이다. 조상신본풀이 연구의 기초를 놓고, 많은 자료들을 함께 실어놓아 큰 도움이 된다.

2. 조상신본풀이 자료검토

1) 자료의 선정기준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어떠한 본풀이를 심방과 관련한 본풀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 김현선은 기존에 채록된 전체 조상신본풀이를 대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남녀 이합·애정담 유형, 강신·원사 유형, 부군칠성 유형, 영감(도채비) 유형이다.⁴⁾ 이 유형 구분에서 보자면 강신·원사 유형이 심방과 관련한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강신체험(신병)을 앓고 심방이 되고자 하였으나, 집안의 반대자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조상신이 되는 것이다. 다른 조상신본풀이에도 억울한 죽음은 있으나, 강신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생각한다면 강신·원사 유형이야말로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강신·원사적 성격만으로는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강신·원사 유형을 포함해 전체 조상신본풀이에서 심방과 관련한 요소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심방과 관련한 본풀이는 심방의 특성이 반영된 본풀이리라 한다. 기존 강신·원사 유형에서 강신(降神)은 심방의 특성에 해당하나, 원사(冤死)는 그 자체로는 심방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방의 특성으로 정할 것인가. 심방의 특성은 곧 무당의 특성이다. 따라서 한국 무당의 기본적 면모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무당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관점은 사실 입무방식에 대한 연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입무방식에 치중한 초창기의 연구가 한국 무속을 복합적

4)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위의 책, 35쪽.

으로 이해하는데 예기치 않은 장애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입무방식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입무방식은 신빙(神憑)이나 신병(神病), 직능 및 신통력, 입무와 성무과정 등 무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어 준다. 마찬가지로 현용준도 제주의 심방을 다룰 때 그 직능과 입무, 성무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심방의 특성은 심방이 되는 계기와 심방으로서 정체성, 그 자질과 능력 등 3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를 추릴 때에도 이러한 심방의 특성이 드러난 본풀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첫째, 본풀이의 주인공이 심방이 되는 계기가 드러나야 한다. 둘째, 심방 팔자 즉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존재이어야 한다. 셋째, 본풀이에 심방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늘과 땅의 일을 아는 특별한 존재’로서 위치하게 되는 내용이 본풀이 서사 전개 of 주요 핵심 사항이 되어야 조상신본풀이와 심방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심방의 특성 외에도 조상신본풀이 자체가 가지는 특성도 함께 살펴 선정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이나 일족(一族)의 수호신에 대한 내력이다. 또한 조상신본풀이 역시 실제 의례에서 구송되는 무가이다. 이런 특성을 살핀다면 여기에서도 3가지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즉 신앙대상인 조상신, 신앙주체인 단골, 신앙과정과 전승의 측면이다. 심방과 조상신본풀이 각각의 특성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검토

자료에 대해 선정기준을 정하여 놓고 전체 조상신본풀이를 다시 살펴 본다면, 심방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다룬 만한 본풀이는 모두 6편이다. 즉 고대장본풀이,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원당할망본풀이,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이다.⁵⁾

이 글에서 다루는 조상신본풀이를 자료가 출간된 년도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기의 편의를 위해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사전』으로,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은 『무가』로, 김헌선·현용준·강정식의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는 『연구』로, 한국학 협동과정의 『이용옥 심방 <본풀이>』는 『본풀이』로,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의 『남제주군의 문화유적』은 『남군』으로,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의 『백록어문(5집)』은 『백록』으로 표기한다. 채록일시는 『사전』과 『무가』의 경우 해당 본풀이의 정확한 채록일시를 알 수 없어, 『사전』의 자서(自序)와 『무가』의 일러두기에 적시한 조사기간을 참고하였다. 구연상황은 실제 의례와 재연으로 나누었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5) 이들 본풀이 외에도 심방적 요소를 보이는 본풀이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호근 이므루 으드렛당본풀이(『사전』 767~770쪽 참고)와 같은 경우이다. 이 본풀이에는 “저는 조천관(朝天館) 이훈장(李訓長) 딸입네다. 홯일곱살(單七歲) 신병(身病) 들고 열다섯 십오세가 돼었으니 원천강(袁天綱)을 썩기라고 이런 곤데 오고 보니 오좌수를 만났수다.” 라는 부분이 있다. 원천강을 속인다는 것은 팔자를 속인다는 말이니, 앞부분 신병이 들었는 것을 감안하면 심방이 될 팔자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본풀이 전체의 내용을 살펴 심방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조상신본풀이	조상신 (신앙 집안)	제보자 (채록일시)	구연 상황	자료 출처 (쪽수)
고대장본풀이	고대장 (濟州市 三徒洞(陳城洞) 高萬戶宅 祖上)	안사인 심방 (1959~1967)	-	『사전』 (811~823)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양씨아미 (南元面 禮村 梁氏宅 祖上)	안사인 심방 (1959~1967)	-	『사전』 (838~843)
원당할망본풀이	원당할망 (城山面 新豐里 강씨택 祖上)	홍매화 심방 (1956~1963)	-	『무가』 (694~695)
안가름 현씨일월당본풀이	현씨일월 (城山邑 新川里 玄氏宅 祖上)	고옥순 심방 (1956~1963)	-	『무가』 (446)
		신명근 심방 (1956~1963)	-	『무가』 (446~447)
		정두삼 심방 (1956~1963)	-	『무가』 (447~448)
		홍매화 심방 (1956~1963)	-	『무가』 (448)
		고산옥 심방 (1988)	의례	『백록』 (355~359)
		신명숙 (-)	-	『남군』 (338)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양씨아미 (朝天邑 臥山里 梁氏宅 祖上)	이중춘 심방 (2003. 8. 23)	재연	『연구』 (311~315)
		양창보 심방 (2003. 2. 6)	재연	『연구』 (336~340)
		김윤수 심방 (2006. 2. 8)	의례	『연구』 (376~383)
		이용옥 심방 (2008. 4. 16)	재연	『본풀이』 (445~453)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김씨 하르바님 (濟州市 外道洞 金氏宅 祖上)	양창보 심방 (2003. 2. 6)	재연	『연구』 (346~352)

위의 표를 보면 본풀이에 따라서는 단순히 조상신본풀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있다. 조상신본풀이이자 당신본풀이인 것도 있

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상신에서 비롯되어 당신으로까지 모셔진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정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조상신 본풀이의 면모가 있으니 이 글에서는 함께 다룰 예정이다.

3) 내용 요약

본풀이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두고, 나중의 논의 전개에 도움을 받기로 한다. 본풀이의 전문을 모두 모으면 그 분량이 적지 않으니 이를 모두 본문에 제시하기 곤란하다. 본풀이 내용은 크게 두 줄기로 요약한다. 우선 심방의 특성으로 삼은 심방이 되는 계기, 심방으로서 정체성, 그 자질과 능력의 측면을 살핀다. 이어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으로 삼은 신앙대상인 조상신, 신앙주체인 단골, 신앙과정과 전승의 측면에서 간단히 요약한다.

(1) 고대장본풀이

고대장본풀이는 『사전』에 1, 2, 3이라는 숫자로 구분되어 3개가 채록되어 있다.

가. 『사전』의 1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	
	정체성	-	
	자질과 능력	영천 이목사 시절 곳을 하여 각시당한집의 영급을 증명, 삼문 안의 신당을 보존시킴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조상신	고대장	
	단골	-	
	신앙과정과 전승	-	

고대장본풀이 1은 조상신본풀이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자면, 심방으로서 고대장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조상신이 되는 계기나 과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일반적인 신당 관련 구전과 다름이 없는 모양이다.⁶⁾

나. 『사전』의 2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	
	정체성	-	
	자질과 능력	곳을 잘 하여 선홀 안씨 집의 곳을 맡음. 곤경에 처한 스님을 도와주고 이장을 하라는 충고에 응해, 큰 복과 벼슬을 받음	
조상신본풀 이의 특성	조상신	고대장	고대장이 만주에미 조상신을 모심
	단골	-	
	신앙과정과 전승	-	

고대장본풀이 2도 고대장의 자질과 능력을 전하는 일화가 있을 뿐, 심방으로서 조상신이 되는 계기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스님의 충고에 따라 이장(移葬)을 하고 나서는 그 자신을 포함해 집안에 오히려 무업보다도 양반벼슬이 더 번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심방으로서 정체성이 약화되고 일반적인 영웅적 조상의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다만 고대장이 선홀 안씨 집안의 만주에미를 조상신으로 받아들인다는 요소는 흥미롭다.

6)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앞의 책, 246쪽 해설 ❶ 참고.

다. 『사전』의 3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	
	정체성	팔자 곳은 심방의 서러움을 하늘이 알아서 비를 내렸다고 여김	
	자질과 능력	극심한 가뭄에 기우제를 성공시킴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조상신	고대장	
	단골	-	
	신앙과정과 전승	-	7월 14일 백중에 심방이 백중 마랑 신만곡을 받음

고대장본풀이 3도 심방의 특성이 좀 드러나고는 있으나, 역시 조상신이 되는 계기와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고대장의 기우제 성공으로 인하여 백중에 심방들이 백중마랑과 신만곡을 받게 되었다는 다소 엉뚱한 결말이 들어 있다.

고대장본풀이 1, 2, 3을 함께 살펴보면, 이 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기는 하나 정작 조상신이 되는 계기나 과정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안의 능력 있고 영웅적인 걸출한 조상의 내력담이 나열되어 있는 셈이다. 그 조상의 신분이 다만 심방이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2의 경우처럼 나중에는 벼슬살이를 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

(2)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어릴 때부터 신병, 예촌마을의 큰굿 하는 집에 찾아가 공깃상의 떡을 먹고, 심방이 맺힌 가슴을 풀어주니 춤을 추게 됨	
	정체성	굿하는 집에서 떡을 먹고 춤을 춘 것을 계기로 자신의 팔자를 찾은 것으로 인식	
	자질과 능력	점에 능하고 굿을 의뢰받음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조상신	양씨아미	양씨열이도 제민공연 받음
	단골	예촌 양씨택에는 조상, 마을에는 본향	
	신앙과정과 전승	예촌 양씨택 독자(獨子)의 병을 계기로 신굿을 하게 되었는데 무구가 없자, 무구를 구해주려 육지로 나가던 오빠가 풍파에 사망하고, 이에 상심하여 역시 바다에 뛰어들어 원혼이 되었기에 조상으로 좌정	

예촌 양씨아미본풀이는 심방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조상신이 좌정하는 계기와 과정이 잘 드러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한편 한 집안의 조상신이자 마을의 당신으로도 좌정하였다는 요소가 있다.

(3) 원당할망본풀이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	
	정체성	남편의 반대로 굿을 못하게 되었지만, 춤을 추어 간장을 풀리려 노력함	
	자질과 능력	‘천하일색’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조상신	원당할망	
	단골	성산 신흥리 강씨택	
	신앙과정과 전승	굿을 못하게 하자 간장을 풀지 못하여 신병이 났고, 급기야 방문을 잠고 안으로 불을 질러 원통하게 죽음, 안찰성으로 위하여 달라고 하여 조상으로 좌정	양반에 대한 원한, 밋칠성으로도 나누어 더욱 줄이 벌은 조상

원당할망본풀이도 조상신본풀이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심방의 특성은 다소 약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 남성

이 무당인 육지 여성을 소첩으로 데리고 온다는 내용인데, 육지 무당과 곳에 대한 특별한 서술은 없다. 이 본풀이에서 특이한 점은 원당할망이 조상신으로 좌정하면서 양반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일제사와 명절을 받지 않고 안칠성이라고 특정해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칠성은 제주의 ‘안칠성/밭칠성’ 신앙이라기보다는, 제장(祭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용준의 설명에 의하면 조상신은 상설적인 제장이 없이 필요한 때에 집에서 곳을 하여 청해 위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 안의 뒷꼴 또는 집 안의 고광(庫房 : 곡물을 보관하는 방)에 상설적으로 모시는 집안도 있는데, 전승을 종합해 보면 후자가 본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⁷⁾ 한편 고산옥 심방이 구연한 현씨일월본풀이에도 제물을 안칠성 옆에 함께 올리라는 대목이 나온다.⁸⁾

(4)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눈미 양씨아미본풀이는 현재까지 4명의 심방이 제보한 내용이 채록되어 있다. 이중춘, 양창보, 김윤수, 이용옥 심방이 구송한 자료이다. 여기서는 실제 의례에서 김윤수 심방이 행한 본풀이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김윤수 심방은 수양어머니인 고군찬 심방으로부터 양씨아미를 포함한 조상신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천읍 외산리 단골들의 의뢰를 받아 조상신을 위하는 곳을 직접 하고 있기에 가장 적절한 제보자라 할 수 있다.

7)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166쪽.

8) “안칠성광 동서 곁에 ㄱ치 앓앙 고리칠셀 올러그네, 메 하나 두 그릇씩 농곡 썸 하나 농곡, 감 두 개 노야건 안칠성 동서 곁으로(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있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5집, 1988, 358쪽 참고.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어릴 때부터 심방소리와 노래·춤을 잘하고, 점을 잘 쳐서 주위로부터 인정받음. 열다섯에 어머니가 죽어 장사 치르고 난 뒤에 굿을 하는데, 심방의 굿을 따라 함	
	정체성	심방을 따라가 자신도 심방이 되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하였지만, 거절당하자 한라산에서 스스로 심방 흉내를 냄	
	자질과 능력	심방 자질을 보였지만, 성공하지 못함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조상신	양씨아미	
	단골	조천읍 외산리 양씨덕	
	신앙과정과 전승	누이동생이 심방이 되려 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한 큰오빠에 의해 16세에 방안에 갇혀 비통하게 지내다, 21세에 큰오빠가 개장국을 끼얹어 결국 원한을 품고 죽음. 조카에게 빙의하여 자신을 죽인 큰오빠의 집은 멸족시킬 것이고, 둘째와 셋째 오빠 집안에는 굿을 하여 대접하면 큰 복을 주겠다고 하여 양씨덕의 조상으로 좌정	

이 본풀이 역시 심방의 특성을 비롯하여, 조상신본풀이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이 본풀이와 함께 채록된 고전적하르바님본풀이와 고군찬 심방본풀이를 함께 살펴보면 더 유용하다. 전자는 본풀이 내용 가운데 저승에서 양씨아미가 고전적과 만나는 대목에서, 후자는 양씨아미의 신력(神力)이 후대에 이어지는 양상과 관계가 있다.

(5) 우렁이 김씨 조상본풀이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처가에 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돌 밑에서 무구(맹두)를 발견하였으나, 모시지 않아 신병이 나자 굿을 하고 맹두를 모심	
	정체성	동네 사람들은 심방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심방임이 드러나자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식으로 무업을 함. 기우제의 성공을 계기로 목사가 백성을 살렸으니 심방일을 그만 두게 하고 통정대부 벼슬과 집을 주어 부자로 잘 살게 됨	
	자질과 능력	연물소리를 따라 예촌마을까지 가서 굿하는 방법도 몰랐지만 굿을 하게 되었고, 지붕을 뜯어보게 하여 첩의 악행을 드러냄. 가뭄에 기우제를 하여 비를 내리게 함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조상신	김씨하르바님	
	단골	외도 우렁이 김씨덕	
	신앙과정과 전승	-	맹두의 전승은 나타남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도 심방의 특성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특히 우연히 무구를 습득하고 그로 인해 심방이 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심방이라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자 마을을 떠나는 행동으로 미루어 당시 심방에 대한 주위의 인식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기우제의 성공은 오히려 무업활동의 중지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뒤로는 벼슬을 받고 부자로 잘 살았다는 내용이다. 본풀이의 후반부에서는 고대장본풀이처럼 한 집안을 부흥시킨 영웅적 면모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신앙과정과 전승의 측면도 맹두의 전승을 제외하면 알 수 없다.

(6)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특성	측면	내용	비고
심방의 특성	계기	어릴 때부터 신병(육간제비 습득)	
	정체성	심방 팔자를 인식	
	자질과 능력	열다섯이 넘으니 큰심방이 될 자질을 보였지만, 성공하지 못함	
조상신본풀이의 특성	조상신	현씨일월	
	단골	신천리 현씨대에는 조상, 마을에는 분향	
	신앙과정과 전승	육지 나간 오빠의 사망을 서러워하며 따라 죽었고, 그 뒤 현씨대(고씨대)이 모셔 집안이 잘 되자 신천리 주민들도 모심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는 모두 6편이 채록되어 있다. 고옥순, 신명근, 정두삼, 홍매화, 고산옥, 신명숙 등이 제보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고산옥 심방의 제보는 『백록』에 남원읍 하례1리의 명신당(明神堂)을 언급한 부분에 실려 있다. 명신당에서 모시는 신 가운데 현씨일월이 있고, 의례에서 관련 ‘현씨일월본풀이’가 구송된 것이다. 고산옥이 구송한 현씨일월본풀이는 명신당의 사례에서 언급된 것이니, 이를 두고 명확하게 현씨일월당본풀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피고 다른 현씨일월당본풀이와 견주어보면, 고산옥이 구송한 현씨일월본풀이는 신천리의 현씨일월당본풀이와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산옥의 현씨일월본풀이를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로 간주해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고산옥이 구연한 현씨일월본풀이와 신천리의 현씨일월당본풀이가 서로 상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현씨일월본풀이는 『사전』에 조상신본풀이의 하나로 실려 있는 예촌 양씨아미본풀이가 이루어진 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관점이

있다.⁹⁾

홍매화 심방의 제보를 빼면, 다른 본풀이들은 현씨일월의 오빠가 육지로 나가는 목적(진상 또는 동생의 무구 구입)이 서로 달리 표현되는 정도일 뿐 그 내용이 거의 같다. 고산옥 심방의 제보는 채록된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가장 많다. 현씨일월본풀이도 심방의 특성이나 조상신본풀이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고산옥 심방이 제보한 것에는 현씨일월이 육간제비를 주웠다는 대목이 있어 심방이 되는 계기가 분명히 나타난다. 한편 한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의 당신으로도 모셔지는 과정이 드러나 조상신신앙이 확대되는 양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3. 조상신본풀이에 나타난 심방에 대한 인식

조상신본풀이와 심방의 관련성은 1차적으로 본풀이에 나타난 심방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본풀이에 나타난 심방에 대한 인식은 곧 심방의 특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심방이 되는 계기와 심방으로서 정체성, 그 자질과 능력은 결국 무업(巫業)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조상신본풀이에 무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따라, 심방에 대한 인식도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6개의 조상신본풀이를 해당 주인공의 무업성취 여부로 생각해본다. 이를 무업완성형과 무업미완성형이라 이름지어둔다. 여기에 첫

9)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원을 역사문화지』, 461쪽. <남원을 민간신앙>을 집필한 강정식은 명신당의 고산옥이 구연한 현씨일월본풀이와 예촌 양씨아미본풀이의 관련성에 주목을 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두 본풀이의 전체적인 내용이 비슷하여 큰 궁금증을 일으킨다. 추후에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째, 무업을 하는 주인공 심방의 성별(性別)을 기준으로 남성형과 여성형이라 한다. 둘째, 주인공의 무업인식에 대한 양상을 살펴 긍정형과 부정형이라 한다. 셋째, 주인공의 무업활동의 양상을 살펴 문제해결형과 문제발단형이라고 한다.

1) 남성형과 여성형

조상신본풀이	성별		무업성취	
	남성형	여성형	무업완성형	무업미완성형
고대장본풀이	○		○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		○
원당할망본풀이		○		○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		○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		○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		○

본풀이 주인공의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고대장본풀이와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는 남성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여성형이다. 위의 표를 보면 남성형은 모두 무업완성형이고, 이에 비하여 여성형은 모두 무업미완성형이다.

남성형은 심방이 되는 것 자체에 큰 장애가 없다. 고대장본풀이처럼 이미 큰심방으로 등장하거나,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처럼 새롭게 심방으로 나선다 해도 이를 특별히 방해하는 이는 없다. 반면에 여성형에서는 예촌 양씨아미본풀이와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의 경우 어릴 때부터 매우 출중한 자질을 보이지만 무구를 갖추는 과정에서 비통하게 죽는다. 눈미 양씨아미본풀이에서도 훌륭한 자질과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의 강력한 행동에 좌절하여 심방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렵

다. 원당할망본풀이처럼 이미 무업을 하고 있던 경우라도, 남편의 반대로 인해 무업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니 남성형은 출중한 심방자질이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되어 조상으로 모셔지는 원인이 된다. 남성형에서는 심방 능력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마음씀씀이나 통찰력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남성형에서는 주인공의 능력을 중히 여기는 것이지, 주인공의 심방 노릇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에 비해 여성형은 출중한 심방자질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생겨 원혼이 되어 조상으로 섬겨지고 있다. 여성형의 주인공들은 단지 심방 자질로만 평가될 뿐이다. 여성의 다른 능력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즉 여성형은 심방 노릇을 중히 여기는 것이지, 능력에 대한 관심은 없다.

2) 긍정형과 부정형

조상신본풀이	무업인식		무업성취	
	긍정형	부정형	무업완성형	무업미완성형
고대장본풀이	○		○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			○
원당할망본풀이	○			○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			○
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	○		○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			○

무업인식은 주인공이 심방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다. 심방이 되는 계기나 정체성, 그 자질과 능력 면에서 주인공이 그것을 어떤 양상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6개의 본풀이 모두 무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본풀이에 따

라 편차는 있다.

남성형인 고대장본풀이는 이미 큰심방으로 등장하여, 딱히 그 심방이 되는 계기를 알 수 없다. 또한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는 김씨하르바님이 멩두를 우연히 발견하고 처음에는 부정하였지만, 나중에 신병이 들자 멩두를 모셨고 그 뒤로 큰심방으로 활동하였기에 긍정형으로 볼 수 있다. 심방임이 알려지자 동네를 떠난 사실로 미루어 당시 주위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지만, 새로운 동네에 가서 걱정하고 무업을 한 것을 보면 이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형에서는 이미 심방이거나, 주인공들이 어릴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미 팔자를 그르칠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무업인식에 비해 무업성취라는 결과는 남성형인 경우에만 완성형이고, 여성형인 경우에는 미완성형으로 귀결되었다. 남성형에서는 그래도 주인공이 큰심방 노릇이라도 해보지만, 여성형에서는 큰심방이 될 자질을 가졌음에도 큰심방은 고사하고 굿을 하는 것 자체에도 장애를 겪었다.

3) 문제해결형과 문제발단형

조상신본풀이	무업활동		무업성취	
	문제해결형	문제발단형	무업완성형	무업미완성형
고대장본풀이	○		○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		○
원당활망본풀이		○		○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		○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	○		○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		○

문제해결형은 무업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무업활동은 난제(難題)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에 비해 문제발단형은 무업활동 때문에 문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인데, 말하자면 무업활동이 문제 그 자체이다.

그런데 문제해결형과 문제발단형으로 분류된 본풀이를 보면 앞서 기술한 남성형과 여성형의 양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남성형이 문제해결형인데 비하여, 여성은 문제발단형이다. 또한 문제해결형은 무업완성형이고, 문제발단형은 무업미완성형이다.

남성형인 문제해결형은 가뭄이나 병의 원인(동토)과 같은 기존 사회의 난제를 출중한 무업활동의 결과로써 해결한다. 이들 남성 주인공들은 자기 집안과 일족의 번영을 이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집안이나 백성을 살리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준다. 문제해결의 양상도 대부분 그리 어렵지 않게 묘사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도내의 심방들이 함께 곳에 참여하고, 하늘이 불쌍히 여겨 비를 내리거나, 혹은 변심한 만주에미 조상이 스스로 따라온다거나, 우연히 스님을 도와주니 명당자리가 생긴다는 등의 내용이다. 반면에 여성형인 문제발단형은 여성의 무업활동 자각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성 집안에 여러 불운이 따른다. 누이동생의 무업을 도와주려 하던 오빠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오빠 또는 남편이라는 강력한 반대자로 인하여 여성 주인공 자체가 죽게 된다. 문제를 인식하면 할수록 주인공은 그 문제에 함몰되어 곤경을 겪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 남성형과 여성형 모두 주인공은 자신의 무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무업활동과 성취의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큰심방으로서 개인의 무업을 이미 성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인정을 받게 된다. 반면에 여성형은 무업활동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었으며, 자신의 무업성취를 이루기도 전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성별	무업인식		무업활동		무업성취	
	긍정형	부정형	문제해결형	문제발단형	무업완성형	무업미완성형
남성형	○		○		○	
여성형	○			○		○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형과 여성형이라는 구분에서 큰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유형에서 심방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남성형에서는 심방의 특성을 ‘능력’이라는 차원으로 다루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여성형에서는 심방의 특성을 ‘문제’로 바라보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각각의 유형은 어떻게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신의 좌정양상과 무업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야 할 것이다.

4. 조상신으로서 좌정 양상과 무업의 전승

조상신본풀이와 심방의 관련성은 2차적으로 조상신으로서 좌정 양상과 무업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이 부분은 조상신본풀이의 특성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즉 신앙대상인 조상신, 신앙주체인 단골, 신앙과정과 전승의 측면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을 살펴봄으로써 남성형과 여성형의 본풀이가 어떤 지점에서 서로 차이점을 달리하는 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성형과 여성형 각각의 유형은 어떻게

조상신으로 좌정하고 있는지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1) 조상신으로서 좌정 양상

조상신본풀이	좌정과정		좌정양상	
	무업활동 원인	비무업활동 원인	특정 집안	마을 신당
고대장본풀이	-	-	○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		○	○
원당할망본풀이	○		○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		○	
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	-	-	○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		○	○

(1) 좌정의 과정

심방이 조상신으로서 좌정을 한다면, 좌정과정이 당연히 그의 무업활동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6편의 조상신본풀이 자료는 심방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것이기에 더욱 주인공의 무업활동과 좌정과정을 살펴야 한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유독 남성형의 본풀이에는 해당 심방이 좌정을 하는 이유 또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고대장본풀이와 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는 모두 능력 있는 조상의 내력담에 불과할 뿐, 가만히 살펴보면 좌정과정이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조상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인 셈이다. 게다가 조상으로서 좌정이 꼭 무업활동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서술도 뚜렷하지 못하다. 이는 남성형이 심방의 특성을 능력이라는 차원으로 다루기 때문

에 무업활동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남성형의 본풀이는 영웅적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집안과 일족의 중흥을 이끌어내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가질 뿐, 주인공의 심방 팔자에서 비롯하여 조상신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해당 집안의 후손이 그러한 조상을 두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만이지, 그로 인해 현실의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의도하지 않는다. 그러니 후손과의 ‘관계 맺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여성형의 본풀이에는 좌정이유와 과정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난다. 그것도 주인공이 직접 말하는 형식을 띠는 경우가 있어, 조상신뿐만 아니라 후손이나 단골도 적나라하게 좌정과정을 인식하고 있다. 여성형의 ‘관계 맺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 양상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

<원당할망본풀이>

“야속히고 원통허연/양반광 줄이/기일제스 스맹질을/받아먹을 수 엇노라./안으로 안칠성으로/위허여 도라.”/허난/안칠성으로 우양허곡/밭칠성으로 나누어,/성손 외손 동니 친근에/밭이 벌곡 줄이 벌던/조상이우다.

(『무가』 694~695쪽)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이젠 고침이는 이제 굿을 허엿고, 이젠 심방은 이젠 고전적 하르바님안테를 살려웁센 허연 신청케허연 다 신메웁고. 양씨아미는 어느 누계가 안티레 들어오렌 청허는 자도 엇고, 어느 미웁 혼 쥐, 어느 감쥐 혼 잔도 아니 주고.

영 혈 때 지금 양씨 큰할마님이엔 현 건 이 집이 예순일곱에 징조 할마님이웨다. 그 조케에 이탁을 허연 입으로 헤뿌림을 허뉘,

“나는 양씨애민디 우리 큰오라바님은 나 개죽물, 개장물에 몸모욕허연

죽여부난, 나 저싱도 못 부뜨고 이싱도 못 부뜨난, 큰 가진 나 씨멜죽 시길 거고, 셋 가지 죽은 가지에 삼년일동 큰긋허민 큰 밧 사게 허고, 죽은긋허민 죽은 밧 사게 허키여.”

입으로 해푸림 허엿구나.

야, 그때에 양씨애미 어진 조상은 안트로 청허곡 허영 7찌 간장간장 폴리는 조상
(『연구』 382~383쪽)

여성형에서는 좌정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안카름 현씨일월당본 풀이도 조상신의 좌정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¹⁰⁾ 여성신의 좌정과정에는 무업활동의 실패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여성신은 단골과 관계를 맺을 때, 빙의(憑依)라는 수단을 곧잘 사용한다. 주지하다시피 빙의는 대표적인 무속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조상신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연을 맺기로 한 단골은 조상신의 요구에 역시 구체적으로 응답한다. 조상신의 요구는 자신을 섬기라는 것이고, 이를 실행한 단골은 그 댓가로 복을 받는다. 남성형처럼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다.

(2) 좌정의 형태

6개의 조상신본풀이를 보면 좌정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한 집안이나 일족에 한정하여 좌정하는 것으로, 이를 일단 ‘단순 좌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둔다. 둘째는 한 집안이나 일족을 넘어 마을 차원에서 모셔지는 것으로, 이것은 ‘복합좌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둔다.

좌정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형의 본풀이는 모두 특정 집안

10)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위의 책, 357~358쪽 참고, 죽은 현씨일월이 새각시에게 빙의하여 상단골과 결연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채록되어 있다.

의 조상신으로 좌정한다. 이에 비해 여성형의 본풀이는 특정 집안에서 모시는 것을 포함하여, 신앙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마을 차원의 당신(堂神)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사실 남성형은 좌정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좌정형태도 그리 나타나 있지 않다. 표피적으로나마 한 집안의 조상으로 좌정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형의 본풀이는 1차적으로 주인공과 관련한 해당 집안의 조상으로 좌정하고, 여기에 2차적으로 마을의 다른 이들도 함께 조상으로 모시는 형태도 있다. 1차적인 형태가 단순좌정이라면, 2차적인 형태는 마을 내 신당으로 변모하는 것이기도 하여 복합좌정인 셈이다.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예촌 양씨아미본풀이,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의 경우 이런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인용을 참고하기로 하자.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양씨 큰할마님이엔 현 건 이 집이 또 예순일곱에, 예순일곱에 징조할마님이웨다. 할마님 연줄로 헤여 이 양씨애미 어진 조상님도 다 오게 헤엿습네다. 양씨 큰할마님도 다 풀려 놓서.

(중략)

양씨아미는 어느 누계가 안티레 들어오렌 청허는 자도 엇고, 어느 미움 혼 쥐, 어느 감취 혼 잔도 아니 주고.

영 혈 때 지금 양씨 큰할마님이엔 현 건 이 집이 예순일곱에 징조 할마님이웨다. 그 조के에 이탁을 허연 입으로 헤뿌림을 허뵈,

“나는 양씨애민디 우리 큰오라바님은 나 개죽물, 개장물에 몸모욕허연 죽여부난, 나 저싱도 못 부뜨고 이싱도 못 부뜨난, 큰 가진 나 씨멜죽 시길 거고, 셋 가지 죽은 가지에 삼년일동 큰곳허민 큰 밧 사게 허고, 죽은곳허민 죽은 밧 사게 허키여.”

입으로 헤뿌림 허엿구나.

야, 그때에 양씨애미 어진 조상은 안트로 청허곡 허영 7찌 간장간장 폴리는 조상 (『연구』 376~383쪽)

눈미 양씨아미본풀이는 한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원혼인 양씨아미는 아무도 자기의 존재를 몰라보자, 조카에게 빙의를 하여 자신의 존재와 요구사항을 알렸다. 이때 빙의했던 조카가 바로 양씨 큰할마님이다. 빙의의 결과 양씨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제향을 받았고, 양씨 큰할마님이 고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자 그 연줄로 고씨 집안에서 굿을 할 때도 구송되는 것이다.

<예춘 양씨아미본풀이>

아기씨, 그 때에, 스신 요왕국(四神龍王國) 앞으로 조은 몸천[肉身] 지바찌 전싱(前生) 굿던 몸 예춘(禮村) 땅 스해요왕(四海龍王) 용신(龍神)으로 수중길[水中路]로 들어가고 예춘당 혼연개(婚姻浦) 이 알로 예춘 양텍(禮村梁氏) 마은으뜸(四十八) 상단골(上丹骨)을 무어 인정 스정(人情事情) 받아옴고, 일년(一年) 혼번 삼진정월(三辰正月) 신과세(新過歲)로 양씨열 이신당(一神堂)으로 제민공연 받고, 유월(六月) 물기리듯 흐던 양씨아미 요왕 수중고혼(龍王水中孤魂)이 돼야 가는 선(船) 오는 선 츠지헤야, 설운 오라바님 제민공연 상을 받쟁흐민 요왕몸기를 비수와 양씨열이 좌정흐던 양씨일월(梁氏日月) 본향(本鄉)으로 우망(爲望)흐는 조상(祖上)입네다.

울랑국 범천왕 궁전궁납 소리로 일천간장(一千肝臟) 풀리옴고 혼 몸천[肉身]은 요왕국(龍王國)으로 도올리고 혼 몸천은 양씨열 뒤에 요왕 수중고혼(龍王水中孤魂)으로, 삼명일(三名日) 기일 제스(忌日祭祀) 때는 상단골(上丹骨)에 상(床)을 받던 조상(祖上)이 돼옴네다. (『연구』 269~270쪽)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우리적선을 그때부터 흐여가난에 물막은밭 선씨조상은 그 새각시, 새시방도 잘 살앙 쫄 흐되 풀아건 밧 흐나 사곡 헛곡직에 풀아거네 밧 흐나

사곡, 쇠(牛) 하나 사곡, 말(馬) 하나 사곡 영 헤가난에 천하거부가, 대부재 (大富者)가 되어가난 방상(친척)마다 “어떠난 영 부재가 되엿시냐?” “영 정 험수다.” “그영호면 우리도 위호저, 우리도 위호저.” 모두 가지가지 송이 송이 아들 간디 딸 간디 밭이 벌곡, 줄이 벌곡, 모두 우리적선 호여정 우리 선씨일월 아니 간 되가 없수다. (『백록』 358쪽)

선첩이서 상단골이 되어, / “작—”호게 벌어지난, / 신천리 전 모실이 / 단골이 되어 우양흡네다. / 신천미 가름에 모신 / 가름한집이우다. (『무가』 448쪽, 홍매화 심방 구송)

예촌 양씨아미본풀이의 경우 본풀이 후반부에 그 좌정양상이 드러난다. 예촌 양씨택에서 상단골을 하면서도, 예촌마을에서 신당으로 모신다고 하였다. 양씨아미뿐만 아니라 양씨열이도 제향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남원읍의 실제 무속신앙 사정을 살펴보면 양씨아미 혹은 양씨열이와 관련한 당신앙은 찾을 수 없다.¹¹⁾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보자 심방의 말명으로는 그 좌정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니, 일단 두 가지 양상으로 좌정한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한편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에서는 복합좌정 양상으로 분화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씨일월을 모셔 현씨 집안이 부자가 되니, 친척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도 너도 나도 모시기 시작하여 결국은 당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씨일월당은 실제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있는 당이다.¹²⁾ 신천리의 천미연대(川尾烟臺) 근처에

11) 남원읍의 당신앙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최근의 자료는 『남원읍 역사문화지』의 제7장 남원읍 민간신앙(강정식 집필)이다.

12) 남제주군·제주대학교 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1996, 337쪽.

있는데, 당 안의 신목에 치마를 입혀놓는다. 당의 제일이 9월 8일, 18일, 28일이라 하니, 초공본풀이에 드러나는 무조신의 탄생일과 같다. 현씨 일월이 심방이었으므로, 이 탄생일이 제일이 되는 셈이다.

2) 무업의 전승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업의 전승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조상신본풀이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의 내력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에서 실존했던 심방의 구체적 무업전승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6편의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무업의 전승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로 눈미 양씨아미본풀이(인용은 <고군찬심방본풀이> 대목)와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를 들 수 있다. 우선 그 양상을 살펴보자.

<고군찬 심방>

야, 그뿐만이 아니웨다. 이 집안이 육촌 누님이웨다. 이름 좋은 고씨 군짜 찬짜웨다.

옛날 양반이 집안이 소민이 낭 좋은 전싱 굿영, 이 양씨아미 조상 신력으로 허영, 집안 멩상거리영 과수문란허연 좋은 전싱 굿곡, 간장 석던 고씨 부모님이웨다.

신의 성방 부모 즈식을 삼양, 산 때 이 아덜안티 흐는 말이,

“날랑 죽거든 고집이 가걸랑은에 고전적조상 본풀이헐 때라근에 나도 흐 마디만 허영 ㄱ짜 나 간장 풀려도렌 허연”

허던 어머니

(『연구』 383~384쪽)

인용한 고군찬심방본풀이에서 고군찬은 눈미 양씨아미본풀이에 등장하는 양씨 큰할마님이 고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낳은 후손이다. 즉

고군찬은 양씨 큰할마님의 손녀이다. 그런데 인용한 본풀이에 의하면 고군찬은 양씨아미의 신력(神力)으로 좋은 팔자를 그르쳤다고 한다. 집안 조상의 신력이 후손에 나타나 심방을 만든 것이다. 물론 집안에 팔자를 그르쳐야 할 이가 생기면, 해당 집안 조상의 신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반영이다.

한편 양씨아미의 신력으로 심방이 된 고군찬 또한 죽은 뒤 자신의 간장을 풀려달라고 하며, 새로운 본풀이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고군찬이 수양아들인 김윤수 심방에게 자기가 죽고 고씨 집에 가서 굿을 할 기회가 생겨 고전적조상본풀이를 하게 되면 자기의 내력도 함께 풀어달라고 하는 대목이 그렇다. 고군찬 역시 사후에 조상신으로 좌정한 셈이다. 거기에 김윤수를 수양아들로 삼았으니, 양씨아미의 신력에서 발원하였다고 인식하는 자신의 무업도 전승시킨 셈이다.

<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

그 하르바님이 장손(長孫)이 지금, 종손(宗孫)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허여, 이 하르바님이 허여 맹두는 어디 갓는고 허니, 요거 시(市)에 서사라에 삽니다. 이태이라고 허는 심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맹두를, 모신 맹뒤가 그 김씨 하르방 맹뒤가 글로 전승(傳乘)이 뉘연, 지금까지도 모사서(모셔서) 큰굿을 합니다. 영 허는 것이 그 하르방 손(孫)이 몇 대(代)가 내려왔느냐 허면은, 지금 이십 삼대(二十三代)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그 맹두가 이십 삼대면은 몇년이 될 겁니까. 적아도(적어도) 오백년(五百年)은 넘었주. 그런 맹두가 지금 혼별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구』 352쪽)

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에서는 김씨하르바님의 맹두가 전승된 양상이 나온다. 본풀이에는 김씨하르바님의 혈연후손이 무업을 전승하였는지

는 분명하지 않다. 이태이라는 심방이 김씨하르바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김씨하르바님이 사용하던 멩두가 23대나 전승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중하다. 멩두의 전승은 곧 무업의 전승이기 때문이다. 김씨하르바님의 신력 역시 멩두 안에서 전승된다고 하겠다.

심방의 무업전승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신력의 발현과 계승, 무업학습과 전수 등 다뤄야 할 측면이 매우 많다. 게다가 국내외의 사례와 견주어 더욱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심방의 무업전승에 대한 종합적인 양상은 추후에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5. 조상신본풀이 형성과 전승

조상신본풀이와 심방의 관련성은 본풀이뿐만 아니라 의례를 통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앞서 말하였다. 조상신, 심방, 단골, 본풀이, 의례 등 다각도에서 고찰해야 전체의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이를 위한 출발점에서 있다. 아주 작은 부분을 건드렸을 뿐이며, 이제 앞으로 가야할 길을 시작하는 셈이다. 그런대로 위에서 논의하였던 사항을 바탕으로, 심방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조상신본풀이를 주로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해서 다루었다. 그러기 때문에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도 남성형과 여성형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려 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성형과 여성형의 본풀이가 그 차이를 드러내는 것과, 각각의 유

형에서 나타나는 조상신 신앙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남성형과 여성형 본풀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심방의 특성과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남성형에서는 심방의 특성을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해당 조상의 생업이 심방이었을 뿐 심방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니 걸출한 조상의 능력을 조상신본풀이를 통하여 대대로 기억하고 전승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조상으로 인하여 집안에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가 또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결핍이 없는 완벽한 조상은 후손에게 현시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이라 정한 조상신, 단골, 신앙과정과 전승 등의 측면에서 거의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조상신 신앙의 범위도 확대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심방과 관련한 남성형 조상신본풀이는 조상신으로 모시는 해당 집안에서 ‘현재를 유지하려는 인식’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반면에 여성형에서는 심방의 특성을 ‘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해당 조상의 생업이 심방이거나 또는 심방이 될 자질을 보였던 것이 집안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심방 자질은 능력으로 상승되기도 전에 끝내 이루지 못하거나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말하자면 해당 조상의 능력보다는 그의 심방 팔자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니 문제의 당사자는 원혼이 되었고, 자신을 기억하고 받드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현실의 세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핍이 있는 조상은 후손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하여 정상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이라 정한 조상신, 단골, 신앙과정과 전승 등의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남겨 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조상의 요

구에 후손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 조상이 큰 복을 내리는 것으로 여겨지자 후손들은 이것이 현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받아들였다. 이런 점은 조상신 신앙이 널리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심방과 관련한 여성형 조상신본풀이는 조상신으로 모시는 해당 집안과 단골에서 ‘현재를 전환하려는 인식’의 결과였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김헌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35쪽, 246쪽.
- 남제주군 · 제주대학교 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남제주군 ·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337쪽.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8, 358쪽, 357~358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461쪽.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166쪽.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Abstract

The formation of Josangsinbonpuri and its transmission

: a study of six Josangsinbonpuris with reference to Simbang

Kang, So-Je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Josangsinbonpuri(조상신본풀이) and its transmission with reference to Simbang(심방). The main points of argument can be summarized in threefold: 1) the understanding of Simbang expressed on Josangsinbonpuri; 2) the aspects of Josangsin(조상신)'s taking over the village and the transmission of the shamanic work; and 3) the background of forming the Josangsinbonpuri and rationale of its transmission.

For this research, characteristics of Simbang as well as Josangsinbonpuri were set up as a standard and six Josangsinbonpuris in connection with Simbang were selected.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Simbang considered three important aspects—ways of becoming Simbang, the identity as a Simbang, and the qualification and ability as a Simbang—, the characteristics of Josangsinbonpuri concerned Josangsin as a religious object, Dangol(단골) as a religious subject and the aspects of believing process and its transmission. Based on this, six Josangsinbonpuris— Godaejangbonpuri(고대장본풀이), Yechon Yangssiamibonpuri(예촌 양씨아미본풀이), Weondanghalmangbonpuri(원당 할망본풀이), Ankarum Hyeonssiilweoldangbonpuri(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 Nunmi Yangssiamibonpuri(눈미 양씨아미본풀이) and Woorengi Kimssijosangbonpuri(우랭이 김씨조상본풀이)— were selected and

* Jeju National University

summarized in both thei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Josangsinbonpuri was viewed as both male-type and female-type in which the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depends on how characteristics of Simbang and Josangsinbonpuri were perceived. As for male-type, the characteristic of Simbang was viewed from 'the ability'. Put it differently, what is perceived as significant in Josangsinbonpuri categorized in male type is not the fact that he or she is a Simbang but his or her ability of which its ancestor was also a Simbang. It was through Josangsinbonpuri that excellent ancestral ability was constructed and transmitted, it was not necessarily to have other instruments for resolving certain problems of family caused by ancestors. Perfect ancestor never be in special need through revelation so that nothing was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Josangsinbonpuri nor the scope of believing Josangsin was expended. Therefore, male-type (Josangsinbonpuri) is interpreted as an outcome of 'intending to maintain the present' by the family that worships ancestral god.

On the other hand, characteristics of Simbang can be seen from the aspect of 'the trouble' in female-type (Josangsinbonpuri). Not only the fact that the ancestor was a Simbang but also a person's potential to be a Simbang become a big trouble within a family. Therefore, the qualification for the Simbang was degraded to an object of rejection by families before it is accomplished. The destiny of the Simbang was more valued than the ability of Simbang's ancestor and thus, the person concerned became a spirit who is interfere in this world in order to make himself (or herself) worshipped. The contents derived from that imperfect ancestor intends to be perfect through establishing relations with descendants remain in the nature of Josangsinbonpuri. The descendent actively respond to unexpected ancestors' request. Besides, having thought that those responses were compensated by

ancestors, the descendent believe that the ancestor would control the life in this world. This view contributed to the diffusion of believing Josangsin. Female-type (Josangsinbonpuri) is interpreted as an outcome of 'intending to change the present'.

Key Words

Simbang, Josangsinbonpuri, Godaejangbonpuri, Yechon
Yangssiamibonpuri, Weondanghalmangbonpuri, Ankarum
Hyeonssiilweoldangbonpuri, Nunmi Yangssiamibonpuri, Woorengi
Kimssijosangbonpuri, intending to maintain the present, intending to
change the present

교신 : 강소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E-mail : islandnine@hanmail.net 전화 : 010-2695-0532)

논문투고일 2009. 11. 20.

심사완료일 2010. 02. 10.

게재확정일 2010. 02. 16.